

# 중국 고대~수나라 한시의 근원을 찾아서

## 고시원(古詩源) 1~3

양희석·김희경 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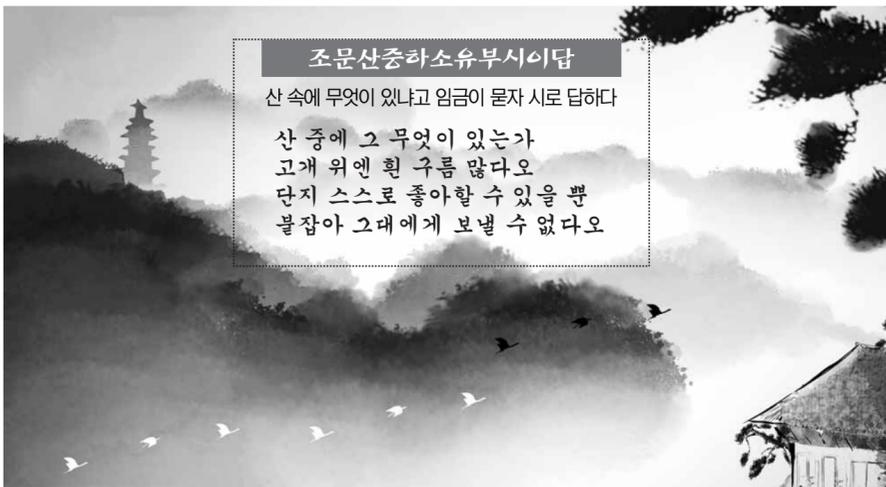


“산 중에 그 무엇이 있는가?(山中何所有)/ 고개 위에 흰 구름 많다오.(嶺上多白雲)/ 단지 스스로 좋아할 수 있을 뿐.(只可自怡悅)/ 붙잡아 그대에게 보낼 수 없다오.(不堪持寄君)”

중국 남북조시대 문학가이자 의약학자인 도홍경(456~536)이 지은 ‘산속에 무엇이 있느냐고 임금이 묻자 시를 지어 답하다’(詔問山中何所有賦詩以答)라는 제목의 한시이다. 제나라 왕 고제(高帝)가 ‘산속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조서를 내려 왕국 화법으로 그에게 벼슬을 권한다. 하지만 은거하며 후학을 가르던 그는 임금의 물음에 시를 지어 명쾌하게 거절한다. 1500여년전에 창작된 시이지만 이를 음미하라면 시공을 건너뛰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청나라때 문학자 심덕잠(1673~1769)이 선진(先秦)시기부터 수나라까지의 시가(詩歌)를 엮은 방대한 분량의 ‘고시원(古詩源)’이 국내 최초로 완역됐다. ‘한시의 근원을 찾아서’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양희석 전남대 중어중문학과 교수와 제자 김희경(중국고전시 전공·박사과정)씨에 의해 총 3권으로 번역됐다.

두 역자는 고대와 진, 한나라때 한시를 수록한 1권(2015년 1월)과 위·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2권(2016년 2월)에 이어



### 조문산중라소유부시이담

산 속에 무엇이 있냐고 임금이 묻자 시로 답하다

산 중에 그 무엇이 있는가  
고개 위에 흰 구름 많다오  
단지 스스로 좋아할 수 있을 뿐  
붙잡아 그대에게 보낼 수 없다오

최근 남북조시대와 수나라 시기를 다른 3권을 펴내며 대장정을 마쳤다. 양 교수는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40여명과 함께 2013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3년에 걸쳐 ‘고시원’에 실린 총900여수의 원문을 꼼꼼히 읽고 풀었다. 전남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강희 58년(1719년) 목판본을 저본으로 하고, 통행본을 참조했다.

이 책은 원시 번역 외에 심덕잠의 원주(原註)와 역사 주, 시의 감상 포인트를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특히 역사적 강요사 작품으로 알려진 ‘동혼후 때의 백성의 노래’(東昏時百姓歌)를 남조 제나라 동혼후 시대의 민가(民歌)로 분류하는 등 원전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양 교수는 서문에서 “저 멀리 신화와 선진(先秦)시대의 ‘수원’(水源)에서 시

작해 한나라, 위·진, 남북조라는 ‘강’(流)을 거쳐 마침내 당시(唐詩)라는 ‘바다’의 입구에 이르는 긴 항해를 마침내 마친 셈”이라고 완역한 소감을 밝혔다.

이번 펴낸 3권에는 왕(송나라 효무제, 수 양제)을 비롯해 관리, 어부, 무명씨(無名氏)에 이르기까지 남북조시대와 수나라 시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지은 300여 편의 한시가 실려있다. 당시 사람들은 시를 통해 인생의 희로애락을 노래하고, 권력과 부조리에 대한 비판도 서슴치 않았다.

제나라 시인 사조의 ‘옥섬들의 원망’(玉階怨)은 남과 다시 만나길 고대하는 여인의 마음을 형상화했다. “저녁 커다란 집에 주렴을 내리거니와(夕殿下珠簾) / 흐르는 반딧불 날다 멈추다 하는구나

(流螢飛復息) / 기나긴 밤 비단옷 꿰매고 있나니(長夜縫羅衣) / 그대 그리움에 이것 어찌 끝나라.(思君此何極)”

또한 남조 송나라 문인 포조는 ‘역사를 읊다’(詠史)에서 “천금이 있으니 시장에 죽지 아니하고(千金不市死) / 경에 밝으면 높은 벼슬에 있다고 했지(明經有高位)”라며 돈을 밝히고 권력을 탐하는 세태를 풍자했다. 5언 또는 7언 시구에 사회상을 반영한 그의 시는 당나라 이태백과 두보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고시원’ 1~3권 원역 출판기념회가 전남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주관으로 11일 오후 6시 30분 광주시 동구 대의동 비움박물관에서 열렸다.

〈전남대학교출판부·3만5000원〉 /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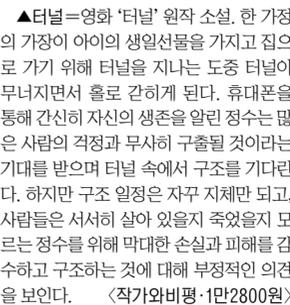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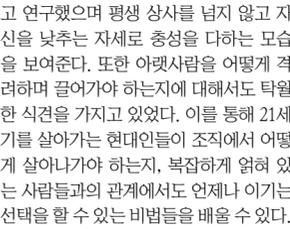
▲공교육은 왜? =대한민국 공교육 문제의 전반을 다룬다. 왜 공교육이 바뀌지 않을지, 왜 사교육이 성행하는 것인지 그 이면의 진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민감해서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는 교육청과 교육부의 일하는 방식에서부터, 최근 교육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캠프 사건, 이천 기간제 교사 사건, 누리과정, 국정 교과서 문제, 교육의 양극화, 자유학기제, 입시교육 등에 대한 교육정책까지 여러 문제를 다루고 있다. <살림터·1만6000원>

▲건강 신드롬 =북미·유럽 사회에선 일반화되어 있는 ‘웰니스’라는 현상이 어떻게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 사람들이 자신을 ‘상품성 높은’ 존재로 만들어 가도록 부추기는지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저자는 광범위한 사례 연구를 통해 현대 자본주의에 기여하는 웰니스 강박증을 진단한다. 오늘날 웰니스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신랄하고 재치 있게 분석함으로써 사회 건강에 대한 집착 자체가 병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민들레·1만2000원>

▲하카루의 달걀 =일본 작가 모리사와 아키오 소설. 호토하라 마을은 청년부원들의 평균 연령이 65세가 넘는 쇠락해 가는 시골 강촌이다. 하지만 양계장을 운영하는 젊은 종가 무라타 지로는 마을을 일으킬 원대한 꿈을 갖고 있다. 숲속 마을에 세계 최초의 달걀밭 전문점을 여는 것이다. 주민들의 냉소와 반발에 부딪히면서도 ‘하카루의 달걀’이라는 달걀밭 전문점을 차렸지만 실패하지 않은 영업 실적에 문을 닫을 처지에 빠진다. <오피스프레스·1만3000원>

▲제갈량처럼 앞서가라 =제갈량은 한 조조의 핵심 인물이었다고 최고의 관리자였다. 그는 사람을 뽑고 쓸 때 철저하게 분석하고 연구했으며 평생 상사를 넘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자세로 총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아랫사람을 어떻게 격려하며 끌어올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조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언제나 이기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비법들을 배울 수 있다. <미다스북스·1만5000원>

▲터널 =영화 ‘터널’ 원작 소설. 한 가정의 가장이 아이의 생일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가기 위해 터널을 지나는 도중 터널이 무너지면서 홀로 갇히게 된다. 휴대폰을 통해 간신히 자신의 생존을 알린 정수는 많은 사람들의 격정과 무사히 구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으며 터널 속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하지만 구조 일정은 자주 지체만 되고, 사람들은 서서히 살아 있을지 죽었는지 모르는 정수를 위해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감수하고 구조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다. <작가와비행·1만2800원>



크립봉봉(을 통해 4세기에 걸친 생활사의 변천과, 시대가 변해도 달라지 않는 정신적 가치를 두루 살펴본다. 수백 년이 흘러도 한결같은 맛, 산딸기 크림봉봉 하나로 어린 독자와 성인까지 모두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씨드북·1만3000원>

▲달은 듯 다른 교과서 속 우리말 =학년별 수준을 고려해 각 교과서를 분석하고 선별한 낱말들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올바른 어휘 사용법을 배울 수 있는 시리즈. ‘5~6학년군 - 약막의 게임에서 탈출하라’에서는 발음과 표기가 혼동되는 말, 받침에 따라 뜻이 다른 말 등 ‘달은 듯 다른 우리말’을 풍부하게 만나 볼 수 있다. <시공주니어·1만원>

## 어린이 책

▲오늘 미세먼지 매우 나쁠 =한겨울씨, 여름여사, 봄이, 일명 계절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대기 환경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냈다. 봄을 맞아 꽃놀이할 생각에 들뜨지만 누런 황사와 미세먼지가 숨 쉬기마저 힘들어지자 봄이는 황사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궁금해한다. 낙타 인형 낙낙이가 궁금증을 하나씩 해결해 주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한다. <스콜라·1만원>

▲인간답게 평등하게 그래서 인권 =인권은 나라, 성별, 종교, 연령, 인종에 상관 없이 인간답게, 평등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품위 있게 살 권리이다. 실제 살았던 인권 운동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잠정 권·장애인 인권·시민권·노동권 등을 알기 쉽게 풀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서 내 생활과 접목시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계절·1만2800원>

▲산딸기 크림봉봉 =2015년 뉴욕타임스 최고의 그림책,서양의 전통적 디저트인

## 한여름에 읽는 범죄·탐정·미스터리·서스펜스 소설 12선

### 헤밍웨이 죽이기

엘러리 퀸 지음



솔로지'가 나왔다.

책에 실린 작품은 노벨문학상과 পুল리처상 수상자들이 쓴 범죄·탐정·미스터리·서스펜스 소설들이다. 이 중에는 철학자·수학자·역사가·사회비평가로 알

품 가운데 국내에 처음 번역된 아서 밀러의 ‘도둑이 필요해’를 비롯해 12편을 담은 미스터리 걸작선 ‘헤밍웨이 죽이기-엘러리 퀸 앤솔로지’가 나왔다.

려져 있어, 장르문학과는 거리가 먼듯한 버트런트 러셀의 작품 ‘X의 시선’도 있다. 신비로운 비밀 조직의 이야기를 고 품스럽게 풀어낸 작품이다.

폴리처상을 2번이나 수상한 ‘세일즈 맨의 죽음’의 아서 밀러의 ‘도둑이 필요해’는 도둑맞은 돈을 되찾을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범죄자의 미묘한 상황을 그리고 있으며 표제작 맥킨레이 켄터의 ‘헤밍웨이 죽이기’는 흉악범과 경찰관의 쫓고 쫓기는 이야기를 담은 갱스터 누아르다.

아주 짧지만 강한 인상을 남기는 작품

들도 있다. 서문이 넘어 갑자기 성장하기 시작한 난장이 이야기를 그린 마크 코널리의 ‘사인 심문’, 제 궤에 속아 넘어가는 책방 주인이 등장하는 제임스 굴드 커즌스의 ‘기밀 고객’이 대표적이다.

또 스티븐 빈센트 베네의 ‘아마추어 범죄 애호가’는 대저택 파티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정글북’의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의 ‘인도 마을의 황혼’도 눈길을 끈다. 그밖에 완벽한 1인 2역의 결과가 불러온 비극적 운명을 보여준 싱클레어 루이스의 ‘버드나무 길’, 한 인간이 가면 뒤에 숨겨왔던 삶이 타로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윌리엄 포크너의 ‘설탕 한스훈’ 등이 실려 있다. <책 읽는 섬·1만4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산업환경기기 & 기계부품 제조전문업체

# 최고를 지향하는 친환경기업

## YHB ECO

창사 29주년

www.yhb.co.kr

### YHB 전기 집진기

생활주변 지긋지긋한 연기, 냄새를 전기집진기가 확 제거해 드립니다.

직화구이 연기, 냄새, 미세먼지 **민원해결사**

연기흡입 → 정정공기배출

10분에 1번 자동 에어세척

**직화구이 연기, 냄새 제거 95%**

직화구이점 미세먼지 배출  
주의보 발령/대기오염 규제  
**실 대응 해결책!!**

전국 각 지역 지점/대리점 모집

광주영업소 **무등산업**

T.062)371-7095 F.062)375-3409

필터 교체가 필요없는 집진기

**(주)YHB ECO / 주식회사 YHB / (주)YHB 토탈서비스**

본사 및 영업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통령로타워 12차 501호 ☎ 02-2029-6400 / FAX 02-2029-6404  
 광주 공 장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74(오선동) ☎ 062-952-6633 **익산공점**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용제동) ☎ 063-835-4771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shh@yhb.co.kr / eco6400@hanmail.net